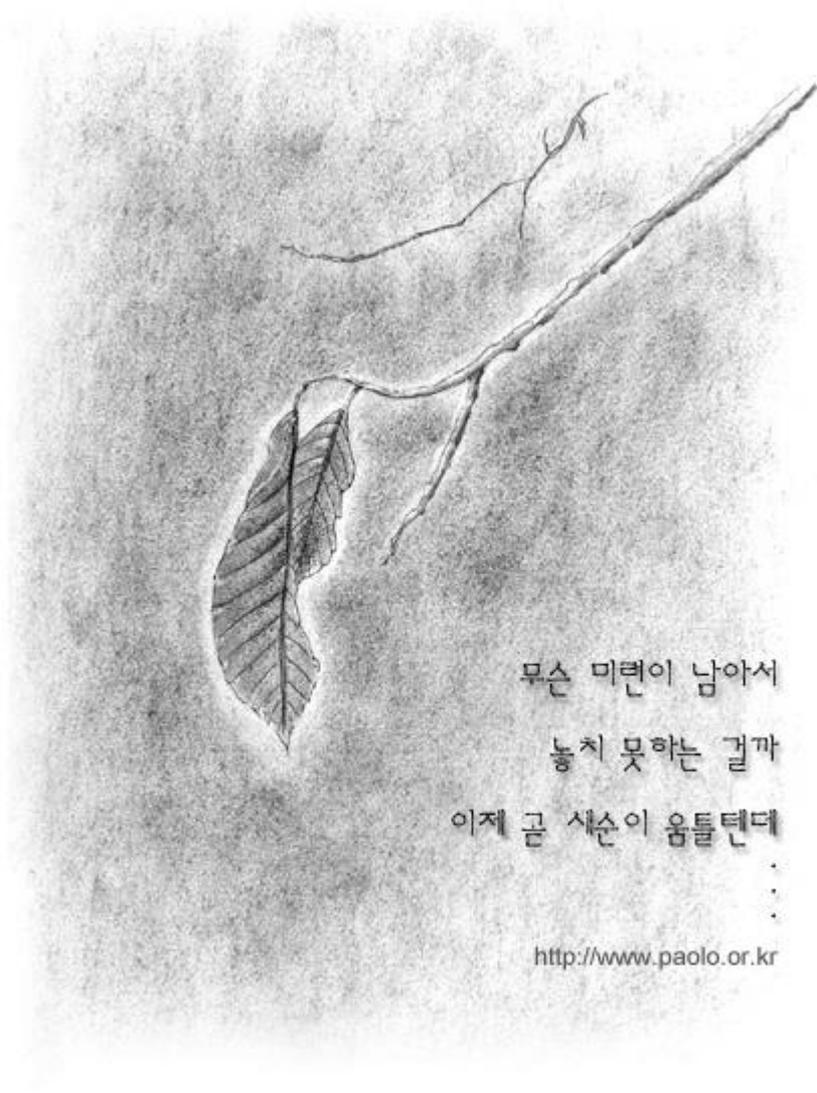


만남

2014 9
통권 188호



무슨 미련이 남아서
놓치 못하는 걸까
이제 곧 새순이 움튼데
:

<http://www.paolo.or.kr>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주임신부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깨어있는 사람과 잠자는 사람(마르 13,33-37)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심판대 앞에 선 의인과 악인 (지혜서 4,20-5,7)-----	4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 74~76 -----	7
가정 교회	부모의 기도 3 -----	11
찬 양	사랑하게 하소서 -----	12
공동체 소식	-----	13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	17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18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19
미사안내	-----	20

《교황님의 기도 지향》

❖ 일반 지향 : 심신 장애인들

심신 장애인들이 품위 있는 삶을 사는 데에 필요한 사랑과 도움을 받도록 기도합시다.

❖ 선교 지향 : 가난한 이들을 섬김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 말씀에 따라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들을 섬기도록 기도합시다.

2014년 9월 칼럼글

깨어있는 사람과 잠자는 사람(마르 13,33-37)

당신은 인생의 삼분의 일을 잠으로 보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90년을 산다고 한다면 그는 적어도 30년을 잠으로 보냅니다.

그가 잠으로 보내는 30년은 허송세월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깨어있는 삶일까요.

잠으로 보내는 30년이 아깝다고 제대로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은 나머지 60년을 졸음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기 위해서는

조신(調身), 조심(調心), 조식(調食), 조식(調息), 조수면(調睡眠) 해야 합니다.

이중 한 가지만 흐트러져도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조수면(調睡眠)이 중요합니다.

밤에 잠을 깊고 평화롭게 자는 사람은 낮 시간의 삶도 활기차고 평온합니다.

그러나 잠자시는 시간이 아깝다고 밤을 새우는 사람은 낮 시간을 졸음으로 보내거나 흐린 정신으로 망쳐버리게 됩니다.

한 밤중에 갑자기 돌아올지도 모르는 주인을 기다린답시고 밤을 꼴딱 새우는 하인은 충실한 하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한 밤중이 아니라 대낮에 온다면, 틀림없이 한 낮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한심한 하인의 꼴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하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밤에는 잠을 잘 자고

낮에는 활기차게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자야 할 시간에 잠을 자는 사람이고

잠자는 사람은 자야할 시간에 자지 않고 깨어 있다가 소중한 낮 시간을 망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밤에 잠을 잘 때 꿈도 꾸지 말고 잠만 자는 사람이 되십시오.

❖ 심판대 앞에 선 의인과 악인(지혜서 4,20-5,7)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0번 ‘어두움을 밝히소서’ 1절을 부릅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주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어 당신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 삶의 이야기 (진행자)



◆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지혜서 4장 20절에서 5장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자기들의 죄가 날날이 헤아려질 때에 그들이 떨며 다가오면 그들의 죄악이 그들을 면전에서 고발할 것이다. 그때에 의인은 커다란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괴롭힌 자들 앞에, 자기의 노고를 경멸한 자들 앞에 나설 것이다. 악인들은 의인을 보고 극심한 공포로 떨며 그 뜻밖의 구원에 깜짝 놀랄 것이다. 그들은 후회하고 마음이 괴로워 신음하며 저희끼리 말할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한때 웃음거리로, 놀림감으로 삼던 자가 아닌가? 우리는 어리석기도 하였구나! 우리는 그의 삶을 미친 짓이라고, 그의 죽음을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였지. 그런데 어떻게 하여 저자가 하느님의 아들 가운데 들고

거룩한 이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의 길을 벗어났고 정의의 빛이 우리를 비추지 않았으며 해가 우리 위로 떠오르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불법과 파멸의 엉덩퀴에 말려든 채 인적 없는 광야를 걸어가며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없을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여 기뻐던 일이 있거나, 반대로 사람들로부터 어리석은 자 취급을 당하거나 스스로 바보같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1833년 스웨덴에서 노벨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화학자요 발명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33세에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여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 후 3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조간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노벨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 내용인즉슨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동명이인(同名異人)을 잘못 알고 “노벨이 죽었다“하니까 그 노벨인 줄 알고 당장 ‘노벨 사망하다’하고 기사를 실었던 것입니다.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노벨한테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죽다’라고 되어있는 기사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노벨은 생각했습

니다. '지금은 내가 살아있기에 망정이지 정말로 죽는다면 이 기사가 사실이 되지 않겠는가, 오늘이라도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노벨은 마음속으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으로 모은 전 재산을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기계이 자기 것을 다 내놓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헌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노벨상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사람들은 무엇으로 결론을 맺으며, 어떻게 평가될 것 같습니까? 또 주님 앞에 섰을때 여러분을 오른쪽과 왼쪽,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중 어느 쪽으로 분류 심판하실까요?

◆ 사제와의 통교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자유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0번 '어두움을 밝히소서' 2절을 부릅시다.



교리74

성경 길잡이 (43)

욘기

하느님은 우리가 아주 착해야만 우리를 축복해 주시며 모든 고통은 우리가 아주 착하지 못한 데 대한 하느님의 벌이라는 낡은 개념이 여전히 우리 주위를 맴돕니다. 이런 개념은 구약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많은 폐해를 가져옵니다.

욘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아주 주요한 인생 문제에 대해 지극히 단순한 질문을 함으로서 하느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욘의 친구들이 그랬듯이 고통을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벌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모욕이고, 다른 한편으로 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를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둘째,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 세상의 모든 논리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의 만남과 하느님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줍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지금 제 눈이 당신을 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이유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욘기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추구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또한 고통의 문제에 대해 쉽게 답을 얻지 못할 때라도 분명히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도록 도와줍니다. 그 해답은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과 사랑이 넘치는 하느님의 팔에 우리 자신을 내 맡긴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깨달는 것입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마르 15,34)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루카 23,46)

우리는 고통에서 평화로 가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리75

성경 길잡이 (44)

시편

시편은 히브리 시의 형태로 된 150개 기도의 모음집으로서 일찍이 모여진 여러 개의 모음집이 유배 이후 모세오경처럼 다섯 편으로 수집되어 엮인 것입니다.

시편은 여러 세대에 걸쳐 쓰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다윗 왕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반면 가장 늦은 것은 기원전 4세기에 쓰인 것도 있습니다. 시편의 반 이상은 다윗이 쓴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시편들은 모세와 같은 개인이나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래를 이끌었을 코라 자손노가 같은 단체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편은 모든 인간적 정서와 상황을 역점을 두어 다루고 있어 어조와 길이와 접근법이 다양합니다. 어떤 것들은 공동체의 기도,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기도용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면 또 어떤 것들은 개인용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은 시편을 찬양(104), 개인 탄원(51), 공동 탄원(90), 신뢰(23), 감사(98), 군왕(20), 전례(134), 행진(122), 역사(78), 구세(2), 지혜(1)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합니다. 시편은 2천 년 전보다 더 오래전에 유다인을 위해 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시대와 나라와 문화에 상관없이 모든 신자가 기도로 바쳐왔고 오늘날에도 대중적 기도로 남아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하느님께 바치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말들을 제공합니다. 시편은 대체로 어조가 일반적이어서 우리의 특별한 환경을 시편의 틀에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세기에 걸쳐 시편을 기도로 바쳐 온 신자 공동체와 일치를 이룹니다. 또한 시편을 통해 우리는 고립된 개개인으로서가 아닌 오늘날의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한 가정의 구성으로서 하느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시편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시편 전체를 읽어 내려가며 그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들을 기억하여 기도와 묵상에 이용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을 기도할 때 그것들을 자주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은 우리가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기도로 바칠 때의 의미가 다르고 건강 진단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의 의미가 다릅니다. 시편은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강력한 중재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6편을 기도할 때 우리가 시편에 말로 표현된 고뇌와 고통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커다란 슬픔을 겪고 있는 친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6편을 그 친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친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시편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시대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복수심을 반영하기도 하고, 잔인성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시편 139편과 같이 아주 훌륭한 시편들 가운데 어떤 것은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용서와 일치되지 않는 구절(19-22절)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부적절한 시편과 구절을 건너뛰는 대신 우리의 심정을 반영하면서도 예수님의 기도와 최대한 닮은 그런 시편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교리76

성경 길잡이 (45)

잠언

잠언의 명칭은 첫 번째 구절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 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잠은 일찍이 수집된 수많은 격언을 편집한 책으로 그 실질적인 저자는 솔로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유다의 지혜전승의 ‘대부’입니다. 잠언의 일부는 유다의 현자들이 젊은이를 가르치려고 사용했던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격언들에서 유래합니다. 또한 일부는 선생들이 궁정에서나 자신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자 수집한 것에서 비롯합니다. 기원전 500년경에 알려지지 않은 현자가 이 격언들과 다른 격언들을 잠언서로 편집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잠언이 매일의 삶에 관한 지혜와 현세의 인생사를 다루지만

모든 잠언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종교적 믿음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다.” (잠언 1,7)

코헬렛

성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인생의 불행한 면을 정직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혼란을 겪을 때도 있고, 용기를 잃을 때도 있고, 희망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코헬렛은 그러한 순간에 대한 책으로서 우리의 두려움, 의구심, 불안, 암울한 느낌이 우리를 하느님과 단절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코헬렛은 기원전 300년경에 코헬렛이라고 하는 유다의 현자가 썼습니다. 코헬렛은 ‘교사’라는 의미입니다.

코헬렛은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에 앞선 세대들이 주었던 쉬운 대답을 거부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항상 행복을 얻는 것도, 악한 사람들이 항상 벌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지식, 사랑, 재물, 우정 등이 사라져갔습니다. 코헬렛의 사색은 우리가 낙담하게 될 때의 생각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보기도 합니다. 한순간 일리가 있던 일이 그 다음 순간에는 그럴지 못합니다. 전통적인 지혜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 같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모순적인 사고와 감정이 마치 파도가 해변가를 덮치듯이 우리에게 밀려듭니다. 문제들이 해결책을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코헬렛은 기분 좋게 읽을거리는 아니지만 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코헬렛은 우리 인간이 무엇이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면 지속적인 행복을 성취하거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코헬렛이 독자에게 해주었던 최선의 조언은 지나치게 큰 행복을 기대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조화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코헬렛은 기다리는 물음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십니다. 바로 이 점에 코헬렛의 큰 가치가 있습니다. 즉, 코헬렛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비안네 신부

부모의 기도 3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우리 부부를 짝지으사 오늘까지 이끌어 주시고,
 지금처럼 함께 기도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리나이다.
 우리를 짝지어 주신 주님,
 당신 손을 펴시어 우리 부부를 축복해 주소서.
 언제나 서로 내어 주게 하시되
 깨끗한 자신을 아낌없이 주게 하시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옹졸함보다 용서함을,
 침묵보다는 대화를,
 자기를 고집하기보다는 자기희생을
 의심보다는 신뢰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부부가 당신 앞에서 결합될 때
 서로 약속한 바를 오늘도 새롭게 하나이다.
 당신의 도우심으로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기로 약속하나이다.
 우리 부부의 일치가
 자녀들에게는 기쁨과 힘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세상에 증거 하는 표지가 되게 하소서.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과 함께
 이 세상에서 성가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사랑하게 하소서

320

최현숙

1. 사랑하기 힘들 어 요 힘 에 겨 워 요
 2. 네 가 바 라 는 그 대 로 남 에 게 주 라

용 서 하 기 어 려 워 요 너 무 아 파 요 나 는
 네 가 기 뻔 모 든 것 들 그 도 원 하 니 숨 은

주 님 께 이 모 든 것 - 받 고 내 가
 생 각 도 아 시 는 하 느 님 이 채 워

주 기 엔 왜 이 리 힘 들 까 요
 주 시 리 은 혜 로 님 치 도 록

사 랑 하 기 힘 든 것 은 욕 - 심 이 며
 나 흔 자 선 힘 들 어 요 함 께 해 주 요

용 서 하 기 어 려 운 건 교 - 만 이 라 오 -
 사 랑 하 는 나 의 주 님 언 제 나 함 께 당 신

주 - 님 낮 아 지 게 - 하 소 서 내 가
 맘 으 로 당 신 의 사 랑 으 로 - 나 의

주 보 다 높 이 올라 있 으 니 -
 나 날 을 살 아 가 게 하 소 서 -

❖ 9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베레나 (St. Verena)	김윤하	23일	리나	이정인			
3일	그레고리오 (St. Gregory)	김유석 김성호						
7일	레지나 (St. Regina)	서유미						
9일	마리아 (St. Maria)	권오상 박현숙						
13일	요한 크리소스토모	김현서						
16일	대건 안드레아	강경목						
17일	로베르토 (St. Robert)	강일남 이도선	29일	가브리엘 (St. Gavriel)	최서로			
18일	리카르다 소피아	이보영 서지혜				미카엘 (St. Michael)	박연심 이현후	
22일	요나 (St. Jonas)	안태웅						김재환 김청운 김채준 김찬희 최희로
			라파엘 (St. Raphael)	김영호 이종하				
					30일	소피아	심재은	

❖ 9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아퀴나스 세라피아	박경자(B)	21일	마태오	김명수(H)
6일	배아타	신의경(H)	22일	디나	김희근(H)
12일	마리아 (St. Maria)	양봉자(B) 유복희(O)	29일	가브리엘라 (St. Gavriela)	신윤경(O)
				미카엘 (St. Michael)	김일환(H) 정근욱(H)
			30일	미카엘라	조진영(H)
				제롬	현우(H)

❖ 세상을 떠난 교우를 생각합니다. ❖

☞세월호의 희생자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9월 20일	☞문용조 로렌조	
9월 11일	☞음대형 바오로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8월 3일	8월 10일	8월 17일	8월 24일
계(€)	217.85	234.82	189.52	250.55

❖ 9월 성가번호

9월	입 당	봉 헌	마 침
7일	46	212	283
14일	29	216	286
21일	287	210	285
28일	518	211	283

❖ 9월 미사 전체 봉사자 ❖

9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카페 봉사
7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강순행(말가르타) 이명자(가밀라)	이정수(토마스) 최장용(레오)	4구역
14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한가위 봉헌 없음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김진호(프란치스코) 이정수(토마스) 곽케빈(요셉)	신자 전체
21일	박귀동(토마) 김민수(아우구스티노)	김잔디(아그네스) 허선애(임마누엘)	이현묵(요셉) 곽케빈(요셉)	청년회
28일	김애란(세실리아) 김매자(베로니카)	김형웅(야고보) 김정자(젼마)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김진호(프란치스코)	요셉 마리아회

❖ 자진헌납금 ❖

8월 자진헌납금 명단은 9월에 함께 올려 드립니다.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회장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우리가 해야 할 일들

1. 9월 3일(수)은 Dr.Hans-Jochen Jaschke 주교님 착좌 25주년입니다. 저희 공동체에서는 영적, 물질적 예물을 준비하여 신부님과 함께 사목위원 3명이 참석을 합니다.
2. 9월 6일(토)은 Nacht der Kirche 행사입니다. 시간은 19:30-22:00이며 여성부에서 먹거리를 판매합니다. 수입금은 복지금으로 사용되어 집니다.
3. 9월 10일(수)은 2구역 친목회가 있는 날입니다. 2구역 가족분들은 18:00까지 Mahlzeit / Asiatisches Restaurant으로 오시길 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구역장 허채열 크리스티안 형제님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4.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성령기도회 고해성사 관계로 주임 신부님께서 출장 가십니다. 전체 공동체에서 5명이 참석합니다. 11일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요셉 마리아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기도 모임 갖으시길 바랍니다.
5. 9월 14일은 한가위 행사입니다. 15:00까지 만남성당 밑 강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추석위령예물은 미리 전례분과장님께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6. 9월 21일(주일)에 예비자 교리 모집이 있습니다. 주일 미사 5개월 이상 다니신 예비자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7. 9월 27일(토)에 레지오 단원 교육이 만남성당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꾸리아 단장님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부고(訃告) - 이영희 마리아 자매님의 남편님께서 8월 31일에 별세(別世)하셨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브레멘 공동체의 서선영 아우구스티누스 형제님께서 지난 달에 칠순을 맞이 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브레멘 공동체에 학생이나 젊은 신앙인들이 함께 하길 언제나 기도드립니다. 저희 공동체는 늘 노력합니다만 주위에 브레멘 근처에 공부하거나 머물러 계시는 한국분들이 있으시면 미사 참여를 권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하노버 공동체에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에 소공동체 기도 모임을 안토니오 성당에서 갖습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항상 사랑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노력합니다.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

❖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한 말 조 마리안나	040/ 5069 7342 0157 7021 0466	
구 역 장 모 임	매월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구 역 분과장	회장단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이 선 주 로 사	0176 7636 2699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강 순 행 말가리다	040/ 297 543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732 1104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김 영 희 클라우디아	040/ 532 4138 0177 724 6335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최 화 영 시 문	8903264		
		총 무	김 정 숙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김 수 희 모니카	04106-72958		
	3구역	구역장	김 형 용 야고보	6310912		
		총 무	김 정 자 켄 마	6310912		
	4구역	구역장	정 명 옥 살로메	6448623		
		총 무	이 순 자 마리아	41091742		

❖ 2014년 9월 ❖

일	요일	전례일	기관·단체 행사	비고
1	월			
2	화			
3	수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 학자 기념일		
4	목		꾸리아	
5	금		1구역 소공동체	
6	토		Nacht der Kirche 19:30-	브레멘
7	일	연중 제23주일		
8	월	한가위·백로		
9	화			
10	수		유럽 성령 목상회-13일	
11	목		마리아 요셉회 소공동체	본당 신부님 출장
12	금		2구역 소공동체	
13	토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학자 기념일		오스나브뤽
14	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	추석 위령미사 및 행사 - 강당	추석위령미사
15	월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16	화	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		
17	수	연중 제24주간 수요일		
18	목			
19	금		3구역 소공동체	
20	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하노버
21	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예비자 교리 공지
22	월	연중 제25주간 월요일		
23	화	추분		
24	수			
25	목		연령회	
26	금		4구역 소공동체	
27	토	성 빈첸시오 드 폴 사제 기 념일	레지오 단원교육	꾸리아
28	일	연중 제26주일		
29	월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		
30	화	성 예로니모 사제 학자 기념일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시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각 소공동체 17시 30분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회장 : 서선영(아우구스티노), Tel : 0421 255162

Osnabrück

시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장 : 최한우(바오로), Tel : 0541 37027

H.P : 0157 5436 0230

Hannover

시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